

그 잡지, 얼마나 나갑니까?

최덕교

출판인 · 창조사 대표

책을 새로 내게 되면 흔히 “얼마나 찍었습니까?” 하는 인사를 받게 되는데, 이와는 달리 잡지나 신문의 경우는 대개 “얼마나 나갑니까?”하고 묻는다. 책은 찍어두고 기한없이 파는 것이요, 잡지나 신문은 제때에 나가지 않으면 휴지가 되고 마니까, 그 궁금해 하는 물음조차 이처럼 다른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꼭 필요하거나 아주 무관한 터수가 아니면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달갑지 않게 들릴 수도 있고, 그 대답 하나로써 그 집 형편을 헤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오늘의 잡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대한제국 말기, 일제시대에 잡지를 발행한 몇분 선각자들에게 “얼마나 나갔습니까?”하고 여쭙어보듯이, 그 자료를 살펴보았다.

1908년 11월, 18세의 소년 최남선은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고 큰 포부를 펼치면서 《소년》을 창간했다. 창간호의 발행부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독자명부에서 나온 듯한 하나의 기록이 있다. “창간호의 독자는 6명, 2호는 14명, 8·9호까지는 30명, 1년이 지났어도 200명을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가 65세 무렵인 1955년 1월 《현대문학》 창간호에 쓴 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소년》시대와 《청춘》시대를 다 계산한다면 10년 이상의 세월을 차지하게 된다. 《소년》에서 《청춘》이 나오기까지 아동잡지로 《붉은 저고리》·《아이들 보이》·《새별》 등이 나왔고 《소년》·《청춘》이 다 2천부밖에 찍지 못한 데 비하여 《붉은 저고리》만이 3천부를 내었다.”

최남선은 이 많은 잡지를 돈을 벌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그만 둔 일은 한번도 없었다. 매번 발매금지·정간처분 등의 탄압을 받아 폐간되고, 그러럼 부대끼면서도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제호로 새 잡지를 내다보니 이렇게 가짓수가 많아진 것이다. 그것은 초인적인 투쟁이었고,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는 위대한 운동이었다.

또 이광수는 1924년 10월에 창간한 《조선문단》을 주재(主宰)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편집방침은 내가 세우고, 작품도 전부 내가 통독하여 결정해 주었지요. 창간호 1천5백부가 휘 나가버려서 재판을 했지요. 재판을 합하면 3천부가 나갔습니다. ...방인근씨는 김안서·염상섭, 이런 술 잘 먹는 패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해서 실패한 것이지요. ...《조선문단》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썼지만, 요리값으로도 상당히 썼지요. 그때 방인근씨는 2,3천원이나 되는 재산을 다 없앴답니다.”

방인근이 고향에 있는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가지고, 《조선문단》 발행에 단독 출자했던 이야기는 한국문단의 흐뭇한 일화로 남아 있다. 한때 호화판으로 놀기도 했던 그는 1960년 1월 《사상계》에다 이렇게 썼다. “남은 것이라고는 집과 전화밖에 없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캄폴주사를 놓듯, 그것을 팔아가지고는 중간호를 내었다. 잡지를 하다가 전 재산을 털어버리고 ..., 그러나 나는 지금껏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3년 동안 그 잡지로 해서 많은 문인을 배출하고, 그 작품들이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귀할 따름이다.”

또 시인 김동환이 1929년 6월에 창간한 대중잡지 《삼천리》의 최고발행부수는 1만부의 기록이 있으며, 전하는 바로는 만주·중국·일본·미국 등지에까지 널리 보급되던 전성기에는 3만부를 넘었다고 한다.

또 시인 노자영이 1936년 7월에 창간한 《신인문학》에는 ‘각 잡지의 발행부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신동아》 8천부 내외, 《신가정》 8천5백부, 《중앙》 6천부, 《신여성》 4천부, 《별건곤 別乾坤》 6천부 등이고 《삼천리》는 인쇄했다가 먹으로 지워놓았다. 8·15 해방 이전에 나온 우리 잡지는 모두 8백종이 넘었지만, 어느 하나도 수지가 맞아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잡지에는 공익성과 상업성의 두 갈래가 있는데, 《출판저널》은 확실히 우리 출판문화 전체의 공익을 위한 잡지다. 그렇다면 너무 부수에 집착하거나 수지를 앞세우기보다는, 얼마나 더 좋은 잡지를 만드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초점	2	우리의 학교도서관에 책이 없다 55개 중 · 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
표지 이야기	3	첨단전산시스템 갖춘 인천시 ‘박물관’ 도서관
특집/중국	4	장강의 역사 이론 중국의 고전 6 책으로 읽는 중국현대사 7 진압과 포용의 중국 소수민족 정책 8 급속한 변화의 불안감 책임기로 달래 - 차태근 9 전문 출판사를 찾아서 - 예문서원/이산
	10	내가 감동한 중국의 문학 임동석/허경진/전형준/장석남/정재서
확대서평	13	김한규 지음 《한중 관계사 1·II》 - 김구진
출판서론	14	‘인권의 말문’ 트기 위한 읽을거리 절실 - 류은숙
기획취재	16	책으로 열어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
교양논단	17	이단의 역사를 통해 본 우리의 자화상 - 조한욱
출판화제	18	통일을 향한 여러 갈래의 길 19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삶
출판가	20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한 지구촌 책잔치 · 외
특별기획	22	격변과 호흡해온 금세기 경제학의 이정표 - 홍훈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고전 ㉠ 외국경제학편
책갈피 산책	15	김신명숙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를 읽고 - 변정수 자크 르 고프 《중세의 지식인들》을 읽고 - 유희수
가상대담	24	‘비벨탑’ 같은 작가 보르헤스와의 대화 - 이남호
만화	25	책과 오과장 - 박시백
마케팅 캠프	26	독자에게 감동 주는 포지셔닝 - 한기호
서평	28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조성을 중국철학회 《역사 속의 중국철학》 - 안병걸 29 엘리아스 《문명화 과정 1·II》 - 주명철 30 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 박영욱 최혜실 편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 김재인 31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기》 - 윤태수
이 책 그 사람	32	《제시의 일기》 펴낸 최선화 · 김현주씨 《해학과 익살의 탈》 펴낸 한국박물관연구회 정인수씨 33 《나는 정말 그를 만난 것일까》 펴낸 황경신씨 《피라미드》 펴낸 이종호씨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48 독서피플